

제32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성황리 거행

역사 속의 안동권문! 우리 권문 하나되자!



선수단



권혁환 준비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32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4월 23일 10시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서울, 대구, 부산, 강릉, 경주, 능곡, 일본, 상주, 청주, 안양 등 29개 지역에서 참가하고 전국에서 종전 16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김상명, 최은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 4년 만에 울산에서 개최하였다. 울산은 1995년 5월에 제7회 대회에 이어 다시 28년 만에 제32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농악대가 입장식의 포문을 열었다. 선수단 첫 번째 입장은 능곡으로 보라색 우산을 들고 질서 정연하게 입장하였다. 이어서 부산, 영주, 영천, 경주 순으로 반갑게 손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입장하였고 맨 마지막은 주최팀인 울산이 자리했다.

권혁환 준비위원장은 입장식이 끝나자 축포와 함께 제32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명배,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내빈으로는 권해욱 회장, 권명호 국회의원, 이재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 권오수 전 국회의원, 권영철 여성국장, 권주연 파총회장협의회 회장, 권오돈 추밀공파총회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인택 전

파총협의회 회장, 권태영 안동농협조합장, 권택형 상주상공회의소 소장, 권재호 성균관부관장, 권희성 산청, 권광택 경상북도 도의원, 권영태 회장, 권영문 변호사, 권길상 대총회 상임부회장, 권오의 대총회 사무국장, 권영호 전 부산총회장, 권오의 울산총회장, 권계하 예천총회장, 권오락 영천총회장, 권영길 안양총회장, 권영창 영주총회장, 권태호 충북총회장, 권혁희 청주총회장, 권극찬 영덕총회장, 권철환 안동총회장, 권용기 대전총회장, 권종희 상주총회장, 권오수 창원총회장, 권혁소 시흥총회장, 권순철 강릉총회장, 권광구 원주총회장, 권오덕 의성총회장, 권병택 음성총회장, 권태갑 문경총회장, 권병석 청송총회장, 권성용 부산총회장, 권영복 산청총회장, 권양호 봉화총회장, 권재복 부산총회장고문, 권종원 부산총회 자문위원, 권광택 청장년협의회 회장, 권오성 대구총회장,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의원, 권승일 일본총회 부회장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권명달 대총장은 대회사에서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는 1989년부터 안동권문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권문 모두 하나 되어 함께 뛰고 응원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뿐 아니라 각 지역이 함께 우리 권문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권오의 울산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축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개최하는 제32회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가 축전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울산총협회 회원



웃음이



홀라후프 결승전

말했다.

권해욱 대총회장은 먼저 권명달 대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후, 격려사에서 권명달 대회장을 비롯하여 권혁환 준비위원장 등 대회를 준비하신 울산 청장년회에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 웃고 즐기고 축제의 한마당이 되시고 힘차게 단결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온 울산에 퍼지길 바란다. 대총회장 6년 임기가 거의 다 됐다.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대총회 회장을 추대하는데 모두 참석해서 훌륭한 회장을 추대하고 화합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조심하고 또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자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환경의 도시, 부자도시,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 울산을 찾아줘서 고맙다. 안동 권문 여러분 존경한다. 최고의 명문가문 혈족 간에 우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이 재익 국회의원은 문수양궁경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회의원은 저는 11남매 중에 10번째이다. 여기 와서 보니 같은 피이고 서로 닮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자랑스러운 권씨 종친으로서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고 국가와 민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오늘 뜻깊고 의미 있는 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권성동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서동원 울산남구청장은 축전을 보내왔다.

주최측은 제31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 권갑수 회장과 권도영, 권영흥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다음은 전대회 우승팀인 능곡에서 우승기를 반환하고, 선수단 일행은 울산청년회 권혁철씨와 이복자씨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수 선서를 했다. 이어서 PK월드컵, 웃음이, 홀라후프 돌리기, 왕 제기차기, 공굴리기, 6인 7각 달리기 등의 경기를 펼쳤다. 특히 홀라후프 돌리기에서는 합천의 초등학교 3학년 10살 권지환군이 많은 어른과 누나와 형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대구에서 온 4학년 권수아 양은 아버지(권진희씨 북야공과 35세)를 따라 참석했는데 대구팀이 출전하자 힘차게 응원했다. 체육대회에 따라오니 어머니고 뭉으니 "재미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안동권문의 아들, 딸들이 어린이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각 지역팀이 출전한 경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경주총회가 합계점수 354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329점을 획득한 영주, 능곡은 전 대회 우승팀으로 321점을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노래자랑에서는 10개 팀이 출전하여 노래와 춤으로 흥겨움을 더했고, 국악가수 임소현, 가수 정희성, 가수 흥사가 출연하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16시에 폐회를 선언하면서 대회를 3개월 준비했다. 다행히 날씨가 좋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안동권문의 분향 안동에서 다시 볼 것을 기약하자고 말했다.



우승팀 경주총친회



노래자랑 수상자



대구팀을 응원하고 있는 권수아 양



홀라후프 우승자 권지환 군

울산은 안동권씨가 약 7000세대 3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권혁환 준비위원장은 3개월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털어놓았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회원 수도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십시일반 찬조금을 내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오영 대한노인회 체육회 울산지회 회장은 권혁환 준비위원장이 30여년 동안 종친회의 기를 마련했고 권오의 회장과 권명달 청년회장이 뜨거운 애추진으로 울산총친회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저력을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울산이 제32회 안동권씨 청장년 체육대회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울산총친회와 청장년회 이외에도 10개의 친목단체가 별도로 조직되어 그물망처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각 친목회 명칭 및 회장단 명단은 표와 같다.

표의 10개의 친목단체는 울산총친회와 울산청장년회의 또다른 기초 조직인 셈이며, 끈끈하게 다져진 친목단체의 조직력과 응집력이 울산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친목회는 매월 모임을 갖고 있지만 월례회 일자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조정되어 있다. 울산총친회와 청장년회를 비롯한 10개의 친목단체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번호	회명	직위	성명	창립일자
1	총친회	회장	권오의	1976.11.28
		사무처장	권혁환	
		총무부장	권영목	
2	청장년회	회장	권명달	1992.2.21
		사무국장	권영목	
		총무	권기대	
3	한기람	회장	권종민	1990.1.
		총무	권혁구	
4	함월	회장	권오달	1994.5.20
		총무	권혁환	
5	무릉	회장	권오달	1995.4.28
		총무	권택성	
6	동천	회장	권기웅	2005.6.22
		총무	권재분	
7	원연	회장	권태용	2005.11.10
		총무	권태중	
		회장	권오선	
8	개인사업자	회장	권태봉	2006.12.10
		총무	권오선	
		회장	권태봉	
9	동구총친회	사무국장	권원기	2007.8.31
		총무	권영목	
		회장	권혁철	
10	태화	회장	권혁철	2011.6.14
		총무	권순득	
		회장	권현숙	
11	말네	총무	권영향	
		회장	권재철	
12	현대중공업	회장	권재철	
		총무	권동혁	

시조 묘소 춘향제 마친 후 '추모 한마음 음악회' 개최



임성국 교장 선생님의 대금 연주



권철환 안동총친회장이 마련한 300여명의 친막. 참석자들이 친막에서 편안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정담계 이야기를 나눴다.

안동총친회(회장 권철환)와 안동추모음악회추진위원회(위원장 권기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추모 한마음 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4월 6일 오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시조 태사공과 아시조 낭중공 춘향제를 성곡리에 마친 주회 측은 오후 능동재사 앞 특설무대에서 가수 등 11개 팀을 초청, 음악회를 가졌다. 해마다 이맘때 안동총친회는 시내에서 북회(伏會)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시조 묘소가 있는 능곡에서 추모 음악회로 대체했다.

이날 거리가 먼 울산시와 전남 목포에서 공연단과 가수가 오는가 하면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있는



권근희씨, '권문을 노래하사'라는 축시 낭송

권연혁 부부가 춘향제에 참석한 후 음악회에서 좋아하는 권도훈 학생 가수를 만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와 김형동 국회의원, 권재주 안동원로원 의장, 권광택 도의원, 권기운 시의원, 원로회원, 전국에서 온 일부 참제원 등 1백여 명이 음악회를 즐겼다. 바람도 불고 날씨도 차가웠지만 축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힘찬 박수를 보냈다. 권철환 안동총친회장은 이날 능숙한 솜씨로 사회를 보면서 웃음을 자아 내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첫 출연자는 임성국 초등학교 교장선생이 대금으로



재미교포 조 권(권연혁씨) 부부와 가수 권도훈

'나의 살던 고향' '인연' 두 곡을 연주했으며 권근희씨는 '권문을 노래하사'라는 제목으로 축시를 낭송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다음 무대는 남녀 14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시킴굿'을 연주하였으며 이어 여 출연자가 무대에 나와 고전 춤을 추기도 했다. 다음 무대는 여대생 2명이 국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멀리 전남 목포에서 온 무량 스님을 하얀 나비 '등 2곡을 선사했다. 울산에서 온 남녀 3명이 '진도 북춤'을 멋있게 추었으며 남녀 7명이 신나는 농악놀이와 사자춤을 추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지난 2월 18일 안동총친회 신년인사회 때 출연, 인기를 끌었던 권도훈(중 1년)이 아래 위 빨간 옷을 입고 무대에 나와 '바보 같지만' '왕눈이' 두 곡을

노래하자 앙코르가 쏟아져 '안동역에서' '보금자리' 두 곡을 선사했다. 권 근은 노래를 부르다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여성 팬들과 신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온 권연혁 부부는 춘향제를 마치고 음악회에서 평소 좋아하던 권도훈군을 만나자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울산에서 온 남녀 4명은 부채춤, 마지막 무대에 선 황기동 가수는 '못다한 사랑' 등 여러 곡을 노래했다.

음악회를 감상한 축전들은 "1회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매년 이곳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세계 테니스를 주름잡는 안동권문의 후예

시조 태사공 춘향제가 봉행되는 4월 6일 한국 테니스를 대표하는 권순우 선수의 할아버지 권만집 전 상주총친회장과 전 미국에서 테니스 1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날렸던 권지훈 선수의 아버지 권연혁(존 권씨)의 만남이 안동 능동재사에서 권행완 편집국장의 소개로 우연히 성사됐다.

두 사람은 손주와 아들이 대한민국과 미국 테니스를 대표하며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를 석권한 세계적인 선수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런 만남이 또 어디 있느냐며 서로 기뻐하며 포옹했다.

세계 테니스를 주름잡는 안동권문의 후예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다.



권만집 전 상주총친회장과 권연혁(존 권씨)

권순우 선수는 2021년 9월 아스타나오픈 우승에 이어 지난 1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도 우승하여 개인 통산 2번째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